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
The Moderating Role of Response Styles*

김빛나(Bit Na Kim)¹⁾
박주희(Ju Hee Park)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response style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responses sty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mprised 419 high school students (185 boys and 234 girls) in two high school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the CES-D Scale (Radloff, 1977) was used. Academic stress and response styles were assessed by the Academic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Lee & Kim, 2000) and the Response Styles Questionnaire (Kim, 1991)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r both boys and girls,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and rumination response style in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whereas the distraction response style de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Second, both the rumination and distraction styles for girls moderated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their depression. On the contrary,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the response styles for boys.

Key Words :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adolescents' academic stress), 우울증상(depression), 반추 반응양식(rumination response style), 주의전환 반응양식(distraction response style).

* 이 논문은 2013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 Hee Par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Yonsei-ro 50,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juheepark@yonsei.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청소년기는 학령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한다(Sullivan, 1953). 급변하는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은 슬픔, 분노, 흥분, 고독감 등의 감정을 단기간 내에 강렬하게 경험하며 심한 내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급격하게 증가한다(Hankin *et al.*, 1998).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면 정신건강 상담의 이유를 분석한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2012)의 연구결과 43%의 청소년들이 상담의 원인을 우울과 위축 때문이라고 보고하여 우울증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주된 부적응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심리적 독립감과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되며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Fergusson & Woodward, 2002). 뿐만 아니라 성인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불안, 행동장애 등과 같은 정신병리의 위험성을 20배까지 높일 수 있고 학업 성취의 결여, 또래관계 문제, 약물 남용, 반사회적 행동,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Auerbach, Eberhart, & Abela, 2010;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 Kwon, 2011).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기능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Kwon, 2012)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중재를 계획하기 위한 기초로써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울증상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Choi, 2009; Franko *et al.*, 2003; Grant & Compas, 2003; Hazel, Hammen, Brennan, & Najman, 2008; 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 특히 부모의 이혼, 가족의 사별 등 주요 생애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청소년기의 우울증상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DeLongnis, Folkman, & Lazarus, 1988) 이에 따라 스트레스 연구의 초점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맞춰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크게 학업, 또래 관계, 가족관계 등에 의해 야기된다(Frydenberg, 2008). 그 가운데서도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로서 우울증상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Scharami, Perski, Grossi, & Simonsson-Sarnecki, 2011; Wilks, 2008).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에 관한 비교 연구들(염행철·조성연, 2007; 홍광식, 1994; 황여정, 2008; Ang & Huan, 2006; Lee & Larson, 2000)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그 어떤 나라보다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로 인한 우울증상도 높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7)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m, 2009; Moon & Jwa, 2008). 또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과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Lee, Choi, & Kong, 2010) 예방과 치료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Kim, 2002; Lee, 2011). 이는 대학 입시를 앞 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Kwon, 2011; Moon & Jwa, 2008).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우울한 기분과 감정에 반응하는 개인의 인지 양식인 반응양식을 고려할 수 있다. 반응양식은 크게 우울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우울한 원인과 의미, 결과 등에 대해 생각하는 반추 반응양식과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주의전환 반응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Nolen-Hoeksema,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양식에 따라 우울증상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bela와 동료들(2002)은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부모를 둔 고위험군 청소년 집단에서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의 증가를 예측함을 보고하였고 Roelofs와 동료들(2009)들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의 증가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bela, Aydin, & Auerbach, 2007; Abela, Brozina,

& Haigh, 2002; Abela & Hankin, 2008).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우울증상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에 따르면, 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그 자연적인 정서반응으로 우울감을 느껴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Ingram, Mirinda, & Segal, 1998). 즉, 스트레스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우울감정이나 우울한 기분이 개인의 반응 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향후 임상적 우울장애로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우울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Park & Min, 2012). 따라서 반응양식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의식과 자기비판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Abela & Hankin, 2008). 이러한 정서적 특징들로 인하여 성인보다 반응양식을 더 분명하게 보인다(Shwartz & Koenig, 1996)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반응양식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변인인 반응양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우울증상과

반응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반추 반응의 경향이 높고 주의전환 반응의 경향은 적어 우울증상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Abela & Hankin, 2011; Abela, Hankin, Sheshko, Fishman, & Stolow, 2012; Abela, Parkinson, Stolow, & Starrs, 2009).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미치는 우울증상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별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 환경에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반응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우울증상의 예방이나 치료를 돕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청소년의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각 한 곳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419명이었다.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고(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높아진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의 우울증상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Kim, 2002). 또한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며, 인지적 변인들이 개인의 안정적인 특질로 발달하는 시기(Abela & Hankin, 2008)이기 때문에 반응양식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185명(44.2%), 여학생 234명(55.8%)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33명(55.6%), 2학년 163명(38.9%), 3학년 23명(5.5%)이었다.

2. 조사도구

1) 우울증상 척도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Jeon, Choi와 Yang(2001)이 수정·변안한 Radloff (1977)의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성인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Im & Kim, 2012; Roberts, Gilboa, & Gotlib, 1998). 특히 이 척도는 기존의 우울 척도들처럼 임상 장면에서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CES-D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응답자로 하여금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 상실, 수면 장애 등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증상을 ‘거의 없었음(0점)’에서 ‘거의 매일(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등을 포함한다.

총 20문항 중 4개 문항(4, 8, 12, 16번)은 역채점 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에서 6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전체 20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였다.

2) 학업 스트레스 척도

연구대상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Kim(2000)이 수정한 Oh와 Choen(1994)의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1점)’에서부터 ‘심하게 느낌(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각 문항은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다’ 등을 포함한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35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였다.

3) 반응양식 척도

청소년의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변안한 ‘반응양식척도(Response Style Questionnaire : RSQ, Nolen-Hoeksema & Morrow, 1991)’를 Kim(201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RSQ는 원래 성인용으로 만들어졌으나 국내의 연구(Kim, 2011; Schwartz & Koenig, 1996)를 통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 보고된 바 있다.

사용된 33개 문항 중 반추 반응양식이 22개 문항,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11개 문항이었다. 반추 반응양식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우울한 기분의 원인이나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생각과 주의를 돌리는 행동을 뜻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반추 반응양식이 22~88점,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11~4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반응양식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반추 반응양식이 .90,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79였다.

3. 조사절차

본 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두 개 고등학교의 16개 학급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회수율은 약 95%였고 그 중 결측값을 포함하였거나 모든 질문에 동일한 답을 표기한 56부를 제외하고 총 41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t 검증 결과 종속변

인인 우울증상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이후의 모든 회귀분석은 남녀 집단 별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인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은 청소년의 우울증상, 학업 스트레스, 반추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이며 각 변인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우울증상 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16.19점, 19.10점

으로 t 검증 결과 여학생의 우울증상 수준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2.51, p < .001$). 남녀 모두 CES-D가 제시한 우울증상 기준점(cut-off)인 1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우울증상 수준이 높은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문항평균이 남학생이 2.53점, 여학생이 2.60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t 검증 결과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반응양식 중 반추 반응양식의 경우 문항평균은 남학생이 1.90점, 여학생은 2.11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반추 반응 경향은 중간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의미와 결과를 반복하여 생각하는 반추 반응을 때때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t 검증 결과 여학생의 반추 반응양식 경향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11, p < .001$).

한편 주의전환 반응양식의 문항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2.22점, 여학생이 2.17점이었으며, t 검증 결과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 모두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쾌하고 중성

<Table 1> Score ran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 419$)

Variables	Score range	Boys	Girls	t
		$M(SD)$	$M(SD)$	
Depression	0~60	16.19(7.77)	19.10(9.60)	-12.51***
Academic stress	35~175	88.48(20.71)	91.11(20.72)	-1.29***
Rumination style	22~88	41.81(11.23)	46.35(11.26)	-4.11***
Distraction style	11~55	24.46(5.69)	23.83(5.60)	1.14***

*** $p < .001$.

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주의전환 반응을 때때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beta = .35, p < .001$)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 p < .001$). 학업 스트레스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증상 변량의 총 12%를 설명하였다.

3. 청소년의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추 반응양식,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반추 반응경향이 높을수록($\beta = .64, p < .001$)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의전환 반응경향이 높을수록($\beta = -.38, p < .001$) 우울 수준이 낮았다. 여학생도 반추 반응 경향이 높을수록($\beta = .69, p < .001$) 우울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높을수록($\beta = -.38, p < .001$) 우울 수준은 낮았다.

이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자신의 우울감정과 우울한 원인 및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으로

<Table 2> Simple regression analysis : Academic stress as predictor of depression ($N = 185$ for boys, $N = 234$ for girls)

Boys		Girls	
Independent variables	β	Independent variables	β
Academic stress	.35***	Academic stress	.34***
R^2	.12	R^2	.12
F	25.76***	F	31.12***

*** $p < .001$.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 Response style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N = 185$ for boys, $N = 234$ for girls)

Boys		Girls	
Independent variables	β	Independent variables	β
Rumination style	.64***	Rumination style	.69***
Distraction style	-.38***	Distraction style	-.38***
R^2	.43	R^2	.49
F	68.26***	F	111.78***

*** $p < .001$.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아짐을 뜻한다. 반면에,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생각과 주의를 돌릴수록 덜 우울해짐을 의미한다. 우울증상에 대한 두 반응양식의 총 설명량은 남학생이 43%, 여학생이 49%였다.

3.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을, 2단계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1) 남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남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

에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남학생의 경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투입한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상호작용항의 추가 설명량 R^2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 여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여학생의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반추($\beta = .13, p < .05$), 주의전환 반응양식($\beta = -.10, p < .05$)의 상호작용항이 여학생의 우울증상에 대한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Moderating effects of response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boys (N= 185)

	Step 1 β	Step 2 β
Academic stress(A)	.15*	.15*
Rumination style(B)	.58***	.59***
Distraction style(C)	-.38***	-.38***
A × B		-.08
A × C		-.07
R^2	.44	.45
ΔR^2	.32***	.01
F	48.53***	29.76***

* $p < .05$, *** $p < .0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Moderating effects of response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girls (N = 234)

	Step 1	Step 2
	β	β
Academic stress(A)	.17***	.21***
Rumination style(B)	.64***	.64***
Distraction style(C)	-.38***	-.37***
A × B		.13*
A × C		-.10*
R^2	.52	.54
ΔR^2	.40***	.02*
F	82.59***	5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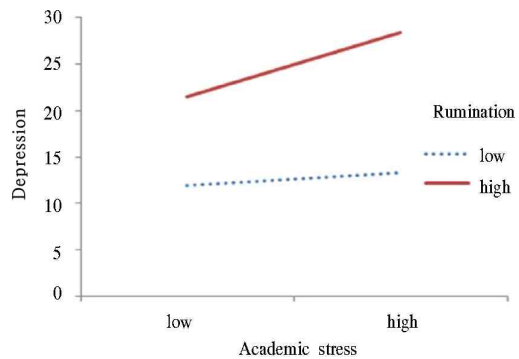
* $p < .05.$,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 경향의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된 두 개의 상호작용항은 추가로 2%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우울증상 변량의 총 5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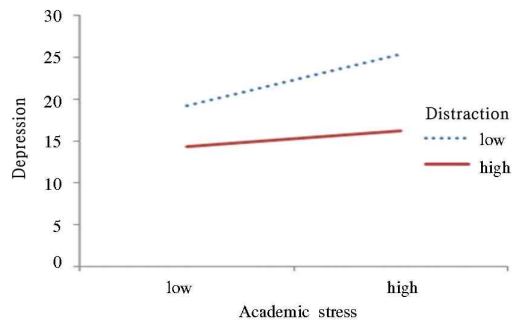
여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 변인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종속 변인치 평균값을 산출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먼저 반추 반응양식과 학업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반추 반응 경향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반추 반응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의전환 반응양식과 학업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그래프는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높은 집단은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낮은 집단에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rumination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girls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distraction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girls

비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았다. 즉,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낮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이 우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Ang과 Huan(2006), Lim(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Abela & Hankin, 2008; Moon & Jwa, 2008; Wilks,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Ystgaard(1997)는 특히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청소년기 후기의 주요한 발달적 이슈로서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우울증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쟁적인 대학입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 우울증상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들(Choi, 2004; Lee, Choi, & Seo, 2000; Lee & Larson, 2000)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업 스트레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증상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본다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함을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선행 연구결과들(Cohen & Edwards, 1989; Kwon, 200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Ingram와 동료들(1998)은 이러한 현상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을 통하여 설명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지적인 취약성이 스트레스 사건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우울증상의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 역시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우울한 기분의 원인이나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반추 반응양식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에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생각과 주의를 돌리는 주의전환 반응양식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Nolen-Hoeksema, 1991; Roelofs et al., 2009)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반응양식 경향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 그 자체로서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반응양식 외에 어떠한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사이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독립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강화를 받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 받으며 성장하였기 때문에(Nolen-Hoeksema, 1991; Piko, 2001) 문제 발생 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고 이를 내재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문제 해결 중심적이며 목표지향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반응양식보다는 학업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인들인 문제해결 대처방식 또는 목표지향적인 활동 등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추측된다.

여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달리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추 반응양식 경향이 높을 경우,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인 개인의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며 우울증상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Abela & Hankin, 2008). 반면 주의전환 반응양식 경향이 높을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가 작았다. 즉, 여학생의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우울증상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정서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타인의 지지와 강화를 받아왔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Nolen-Hoeksema, 1991). 즉, 여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의전환 반응과 같은 인지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며,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덜 경험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절효과에 초점을 두어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파생되는 우울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여학생의 경우 반추 반응을 줄이고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나 부모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여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먼저 우울한 기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탐색하여 우울한 감정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으로 여학생에게 주의전환 반응양식의 사용을 통하여 우울한 기분을 통제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보면, 청소년 여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수준 그 자체보다 반응양식의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반추 반응 경향이 낮거나,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높다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반응양식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 환경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연구된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남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청소년의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으므로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왜곡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든 변인의 측정이 동일한 평정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문항간의 상관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나 부모의 보고 자료 혹은 개인 면접을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성이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의 경우 반응양식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적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되었던 인지적 조절변인인 인지왜곡 혹은 인지적 귀인양식 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를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남녀 별로 접근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조절효과에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혹은 상담현장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bela, J., Audin, C., & Auerbach, R. (2007). Responses to depression in children : Reconceptualizing the relation among response sty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13-927.
- Abela, J., Brozina, K., & Haigh, E. (2002). An examination of the response styles theory of depression in third-and seventh-grade children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5), 515-527.
- Abela, J., & Hankin, B. L. (2008).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Abela, J., & Hankin, B. L. (2011). Rumination as a vulnerability factor to depress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 A multi-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2), 259-271.
- Abela, J., Hankin, B. L., Sheshko, D. M., Fishman, M. B., & Stolor, D. (2012). Multi-wave

-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stress-reactivity extension of response styles theory of depression in high-risk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277-287.
- Abela, J., Parkinson, C., Stolow, D., & Starrs, C. (2009). A test of the hopelessness and response styles theories of depression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 354-364.
- Ang, R. P., & Huan, V. S. (2006).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using multiple regressio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37, 133-143.
- Auerbach, R. P., Eberhart, N. K., & Abela, J. (2010).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Canadian and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57-68.
- Choi, J. A. (2009) Relational victimization in class and adolescent depression : Examining the model integrating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factor and coping strategies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sour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W. K. (2004). A Study on the socio-structural cause of youth suicide. *Social Welfare Policy*, 18(4), 5-30.
- Cohen, S., & Edwards, J. R. (1989). *Advances in the investigation of psychological stres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Copeland, E. P., & Hess, R. S. (1995).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coping strategies based on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03-219.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86-495.
- Driscoll, K. A., Lopez, C. M., & Kistner, J. A. (2009). A diathesis-stress test of response styles in childre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8), 1050-1070.
- Fergusson, D. M., & Woodward, L. J. (2002). Mental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role outcomes of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 225-231.
- Franko, D. L., Striegel-moore, R. H., Brown, K. M., Barton, B. A., McMahon, R. P., Chreiber, G. B., et al. (2004).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 girl. *Psychological Medicine*, 34, 1319-1330.
- Frydenberg, E. (2008). *Adolescent coping : Advanc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Routledge.
- Grant, K. E., & Compas, B. E. (2003).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 Moving from markers to mechanisms of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29(3), 447-466.
- 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7). *Youth report*. Seoul : Government Youth Commission.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McGee, R., Silva, P. A.,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128-140.
-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78, 279-295.
- Hazel, N. A., Hammen, C., Brennan, P. A., & Najman, J. (2008).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adolescent depression : The mediating role of continued 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8, 581-589.
- Hong, Y. S. (2005).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 7-33.
- Hwang, Y. J. (2008).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academic stress as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f Korea Youth*, 19(3), 85-114.
- Im, E. M. (2009). The changes of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Adolescent Studies*, 16(3), 99-121.
- Im, J., & Kim, E. J. (2012). The influence of adolescence's actual-ideal self discrepancies on depression : Mediating effects of the shame and ruminative response style. *Adolescent Studies*, 19(1), 279-306.
- Ingram, R. E., Miranda, J., & Segal, Z. V. (1998).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Jeon, K. G., Choi, S. J.,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7.
- Jeon, S. Y. (2009).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heir sense of hopelessness : The effects of moderator on children's emotional processing style as manifested in a depressed mood.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6), 55-64.
- Kagan, A. (1975). *Epidemiology, disease and emotion : Their parameters and measurement*. New York : Raven Press.
- Kim, M. O. (2010). Influence of learning stress,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attitude on school performance among middle school boy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L. (2011).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response styles theory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2012). *Youth report*. Seoul :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 Kwon, H. I. (2012). An empirical review of depression Pre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12(1), 21-41.
- Kwon, S. W. (2011). Cognitive distortions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H., Choi, T. S., & Seo, M. J. (2000).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2*(2), 69-84.
- Lee, E. S.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4), 576-585.
- Lee, G. E. (2011). The effect of self-discrepancies upon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nd positive thinking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S., & Kim, J. H. (2000). The effects of study stress coping train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study stres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43-59.
- Lee, K. Y., Choi, S. C., & Kong, J. S. (2011).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Adolescent Studies, 18*(5), 83-107.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Lee, M. S. (1995). *Adolescents' academic stress coping strategy*. Seoul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Lee, Y. J. (2006). Validation study of response to stress questionnaire(RSQ).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
- Moon, Y. J., & Jwa, H. S. (2008).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psychological health in adolescents :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8*, 353-379.
- Na, Y. A. (2002). Differential effect or ruminative-distractive response styles on depressive m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2010 Korean adolescents health behavior survey*.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1). A prospective study of the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a natural disaster : The 1989 Loma Prieta earthquak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15-121.
- Oh, M. H., & Cheon, S. M. (1994).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15*, 63-96.
- Park, W. M., & Min, K. J. (2012). *Depression*. Seoul : Sigmappress.
- Piko, B. (2001).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 in adolescents' ways of coping. *The Psychological Record*, 51, 223-235.
- Roberts, J. E., Gilboa, E., & Gotlib, L. H. (1998). Ruminative response style and vulnerability to episodes of dysphoria : Gender, neuroticism, and episode dur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4), 401-423.
- Roelofs, J., Rood, L., Meesters, C., Dorsthost, V., Bogels, S., Alloy L. B., et al. (2009). The influence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depressed and anxious mood :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response styles theor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8(10), 635-642.
- Sarin, S., Abela, R., & Auerbach, R. P. (2005). The response styles theory of depression : A test of specificity and causal mediation. *Cognitive and Emotion*, 19(5), 751-761.
- Schraml, K., Perski, A., Grossi, G., & Simonsson-Sarnecki, M. (2011). Stress symptoms among adolescents : The role of subjective psychosocial conditions, life style, and self-esteem. *Adolescence*, 34, 987-996.
- Schwartz, A. J., & Koenig, L. J. (1996). Response styles and negative affect among adolesc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1), 13-36.
- Shih, J. H., Eberhart, N., Hammen, C., & Brennan, P. A. (2006). Differential exposure and reac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predict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 103-115.
- Song, S. (2000). Effects of SE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tress coping method on high school student's stress in Choen-buk.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3), 171-187.
- Strauss, J., Munday, T., McNall, K., & Wong, M. (1997). Response style theory revisited : Gender differences and stereotypes in rumination and distraction. *Sex Roles*, 36(11), 771-79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The Norton Library.
- Wilks, S. E.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20.
- Yangcheon-gu(2011). *Yangcheon statistical year book* Seoul : Yangcheon-gu Office.
- Ystgaard, M. (199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ate adolescence. *Social Psychiatry and Epidemiology*, 32(5), 277-283.

2013년 2월 28일 투고, 2013년 5월 28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